



황강, '4 불 2 직'의 방식으로 홍수방지사업 검사 지도할 때 강조 '구조보다 방지' 요구를 실제로 확실히 락착하고 인민대중들의 생명재산안전 확보해야

련일 심한 강우의 영향으로 우리 성 중서부 일부 강하천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일부 제방에 위험한 상황이 나타나면서 홍수방지 형세가 준엄하고 복잡해졌다. 8월 1일, 성당위 서기 황강은 '4 불 2 직'(四不两直)의 방식으로 송원시와 장춘시에 가서 홍수방지대처사업을 현지에서 검사하고 지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홍수방지 재해구조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시종 최고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시시각각 작전을 준비하고 엄격히 방지하고 사수하며 위험조사, 위험제거, 긴급구조 제반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구조보다 방지(防胜于救)' 요구를 실제적으로 실시하여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8월 1일, 성당위 서기 황강은 '4 불 2 직' 방식으로 송원시에 가서 홍수방지대처사업을 현지에서 검사 지도하고 하달산 수리중공공사 현장에서 일선의 사업일군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당지의 홍수방지 상황을 상세하게 료해했다.

배출을 서둘러 추진하여 농업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송화강 수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덕해의 '5 대 제방'(五大堤防) 안전이 정도부동하게 위험을 받자 무장경찰부대 장병들과 당지 간부, 군중들이 한창 서둘러 보강하고 있었다. 황강은 '5 대 제방' 중의 하나인 투자리(套子里) 제방에 가서 보강 진전과 전이피난(转移避险) 상황을 살펴보고 제방에서 분투하고 있는 무장경찰부대 장병들을 위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이 오늘 기술인 부지런한 노력은 앞으로 며칠간의 홍수방지 홍수대처 사업에 극히 중요하다. 진분은 전투기발이 제방에서 휘날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번 8.1 건군절을 매우 의미있게 보냈다. 여러분들이 영웅한 행동으로 습근평 총서기의 '인민지상, 생명지상'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실천하고 전 성의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과 손잡고 한마음한뜻으로 안전하게 홍수기를 넘길 수 있는 견고한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기를 바란다.

검사 지도를 하면서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면 우리 성 중동부 상류의 저수지는 한창 질서있게 홍수를 방류하고 있으며 송원, 장춘 등지의 일부 하천 구간은 홍수고봉의 시련을 겪게 되는데 홍수방지 홍수대처 임무는 여전히 매우 고강도다. 관련 시, 현은 시종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위험과 싸우고 큰 재해를 구조하는 이 끈을 단단히 조이고 마비사상과 요행심을 견결히 극복해야 한다. 또한 시종 '시시각각 안심할 수 없다'는 책임감을 유지하고 제반 사업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잘 틀어쥐면서 전력을 다해 이

격전에서 이겨야 한다. 순찰과 위험 제거의 강도를 높이고 어떠한 위험과 잠재적 위험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긴급 구조물자를 충분히 준비하고 응급예비안의 실천 연습을 강화하여 재해 직면 위험 대처(临灾避险)에서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한다. 작은 문제에서 큰 문제를 보아내고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면서 하천 굽이 등 구간 제방의 취약점을 주시하고 보강공사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전 성의 제방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 파악을 전개하고 일련의 제방 보강 프로젝트를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근본적으로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은혜, 리위가 관련 활동에 참가하였다. / 길림일보

연변 15분 편민생활권 국가급 심사에 입선!

일전 국가 상무부는〈도시 15분 편민생활권 제4진 전국 시범 심사 결과에 관한 공시〉를 발표했는데 연변이 성공적으로 입선되었다.

15분 편민생활권은 사회구역 주민을 봉사 대상으로 하고 봉사 환경을 도보로 15분 범위내로 하여 주민의 일상생활 기본소비와 품질소비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바 다업종 집결을 통해 형성된 사회구역 상권을 말한다.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15분 편민생활권 건설을 가동한 이래 연변에서는 관련 정책을 참답게 관철 시달하여 편민기제를 보완하고 정책인술을 강화하며 사업조치를 최적화하는 것을 통해 편민 봉사의 새로운 고지를 구축했다.

편민생활권은 현역 상업체계 건설, 야간 소비집결구 건설, 특색거리 개조 등 자금 정책과 련결시키고 물류배송중심, 공공시설 전지창고, 상업무역중심 등 상업 기초시설 37개를 개조하며 '연백패도(延

百快到)', '매일롱엄선(每日隆严选) 연길서시장 공식상가' 등 디지털화 쇼핑 플랫폼 17개를 개발하여 생활권 편리화 정도를 부단히 제고시키고 있다.

신청 과정에서 연변은 연길시 공원가두 대학성, 신흥가두 백화-서시장, 훈춘시 신안가두 춘량사회구역, 도문시 향상가두 흥안사회구역 등 15개 편민생활권을 정합하는 것을 통해 15분 편민생활권을 형성하였고 이번 국가급 심사에 입선하는데 성공했다.

다음 단계에 연변에서는〈연변 15분 편민생활권 건설사업 실시방안〉에 따라 각 현, 시에서 진일보로 단점을 보완하여 상업분포를 최적화하고 소비조건을 개선하며 소비장소를 혁신하고 봉사능력을 향상시키며 경영주체를 장대시키고 취업창업을 촉진하는 등 6개 방면으로부터 편민 생활권 시범 건설사업을 전면 추진하고 본보기 시범 효과를 제고시킬 방침이다. / 연변라디오 TV넷

왕조룡, 전국모범퇴역군인에 선정! 연변 유일!

7월 29일, 북경에서 소집된 전국퇴역군인사업회의에서 전국모범 퇴역군인 397명과 전국퇴역군인사업 모범단위 100개, 모범개인 80명을 표창했다. 그중 국가세무총국 연길시세무국 당위 위원이며 부국장인 왕조룡이 전국모범퇴역군인에 선정되었다. 왕조룡은 연변에서 유일하게 전국모범퇴역군인 명단에 들었다.

2000년 8월, 왕조룡은 제대한 후 원 연길시국가세무국에서 근무했다. 세무 분야에서 근무한 24년간 그는 다양한 세수 위법 사건 100여건을 조사처리하고 1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으며 200여차 기

층에 내려가 조사연구와 방문을 하고 1,000여차의 업무 자료를 받았으며 약 100만자의 학습필기를 했다.

최근년간 왕조룡은 연변의 경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세금 관련 업무가 늘어나는 실제 상황에 비추어 연길시에 9개 세금봉사소를 건설하고 길림성에서 술선적으로 '10분 세무 신고 봉사권'을 구축했으며 길림성 첫 응답봉사중심을 설립했다.

훌륭한 사업 성과로 왕조룡은 선후하여 성, 주, 시급 '우수당사업일군', '우수공산당원', '우수세무사업일군' 등 20가지 영예를 수상했다. / 연변일보



패리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중국의 관중들이 현장에서 중국 체육권 아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 8월 2일 14시 50분까지 중국올림픽대표단은 금메달 11개를 따내어 잠시 패리올림픽 메달 순위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 길림일보

김영건, 정봉숙 전국소수민족문학창작 준마상 수상



김영건



정봉숙

7월 31일, 제13회 전국소수민족문학창작 준마상 평의 결과가 북경에서 발표되었다. 25편의 수상작과 5편의 번역수상작품들중 연변의 작가들인 김영건의 시집《류신동 산새는 겨울산에서 운다》(조선문)가 시가상을 받고 정봉숙의 번역 작품《위씨네 사당(魏氏祠堂)》이 번역상을 받았다. 김영건에서는 두 사람이 이번엔 준마상을 받았다.

‘준마상’은 중국작가협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가급 문학상으로서 모순문학상, 로신문학상, 아동문학상과 함께 국가급 4대 최고 문학상에 속한다. 이번엔 수상한 김영건과 정봉숙은 모두 연변작가협회 회원이며 수상 작품은 최근 몇

년간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습근평문화사상과 전 주 민족문화사업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 실시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다지는 것을 주선으로 하면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을 견지하고 새로운 시대문학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이룩한 풍성한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김영건은 1963년생으로 중국작가협회 회원, 중국텔레비전예술가협회 회원, 국가 1급 감독, 제9회, 제10회 중국작가대표대회 대표이며 주요 작품으로는 시집《사랑은 전개가 없다》,《빈자리로 남은 이유》,《아침산이 나에게로 와서 안부를 묻다》,《물결이 구겨지고 퍼지는 이유》 등이 있다. 그는 제12회 길림성 '장백산'문예작품상, 주 제5회, 제7회 진달래문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집《아침산이 나에게로 와서 안부를 묻다》는 제1회 중국조선족 '단군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그가 편역 및 총기획한 무용극《아리랑꽃》은 중국소수민족 무용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제4회 전국 100대 텔레비전예술

일군, 제4회 길림성 10대 텔레비전 예술일군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길림성 텔레비전 두루마상 최우수감독상, 전국소수민족라디오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하였다.《위씨네 사당》은 중국 강서성의 한 농촌을 배경으로 민속학, 물리학의 관점과 시각으로 위씨 가족 5대의 가족사를 묘사했는데 한 대가족의 농촌에서 도시까지의 변화무쌍한 역사를 재현하고 가족 단위로 그들의 혼인관계, 혈연관계, 진정관계, 세대간의 관계를 예술적인 대배경하에서 서술하고 탐구했다. 작품은 력사와 문화의 교체를 목격하고 한족과 조선족이 화목하게 공존하는 큰 사랑의 뉴대를 엮어 가족공동체를 함께 건설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번역가 정봉숙은 신중하고 세밀하게 원문을 통독하고 이해하면서 녀성 특유의 예민함으로 작품의 주제에 착안하여 작가의 창작 분위기, 심경과 언어 환경을 포착하기에 노력했다. 류창하고 정확한 언어로 이야기 줄거리와 각양각색의 인물의 기복이 심한 운

명 속에 내포된 철리를 표현하고 중화문화와 소수민족문화의 주요한 부분과 가치와 의의의 구상과 표현을 통해 중화민족의 풍부한 풍습과 체현, 나아가 중화민족의 독특한 풍습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깊이있는 민족과 풍습을 느낄 수 있게 했는바 다원성과 비교적 강한 시대감 및 정신적 함의를 보여주었다.

1969년생인 정봉숙은 연구생 학력에 법학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작가협회 회원, 제9기 전국위원회 위원이다. 그는 산문, 보고문학, 소설, 가곡 등을 창작하고 조한 번역사업에 종사하였으며 작품은《인민문학》,《인민일보》,《문예보》,《민족문학》,《미문》,《천지소설》등 간행물들에 발표되었다. 정봉숙은 장편 보고문학《진달래 영혼산강》을 창작, 출판했으며 장편소설《남대천》및 시화가곡집《중국조선족민속도》등을 번역, 출판하였다. 번역소설《3D마스크》는 '2020《민족문학》년도상' 번역상을 수상하였다.

/ 김태국기자

우리 나라 첫 기본의료보험 보험 참가 장기효과기제 정식 공포

국무원 판공청에서 인쇄발부한〈기본의료보험 보험 참가 장기효과기제를 건전히 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의견〉)이 8월 1일 공포되었다.〈의견〉에 근거하면 련속 보험 참가를 격려하는바 4년 련속 주민의 의료보험에 가입한 군중은 5년째부터 1년 더 가입할 때마다 중병보험 최대 지급 한도를 최소 1,000원 이상 높여줄 수 있다. 또한 기금 무보험 처리도 격려하는데 해당 년도에 의료보험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보험 참가 군중의 경우 다음해에 중병보험의 최대 지급 한도를 최소 1,000원 높여줄 수 있다.

〈의견〉은 보험 가입에 대한 호적

제한을 완화하고 외지 호적 중소학생, 학령전 아동의 상주지역 보험 참가 사업을 추동한다고 재전명했다.

〈의견〉은 비집중 징수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참가자와 지급중 단자의 보험 재가입에 대한 고정 및 변동 대우 대기 기간 규칙을 명확히 하고 납부 방식을 통해 대우 변동을 회복할 수 있는 등 대기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체 보험 참가 인원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수호했다.

〈의견〉에 근거하면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계좌 공제 범위를 가까운 친척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공제지역의 점진적 확대를 추동한다.

/ 인민넷 - 조문판